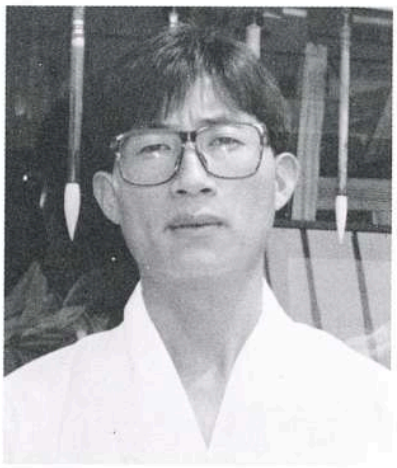
전북 회화



통권 제4호
전북회화회 발행



표지작가: 방 정 엽

- 김제出生
- 전북대 미술교육과 졸업
- 한번의 개인전과 그룹 및 단체전 참여
- 전북회화회, 꼬올, 한국화회원,
- 전주 기린여자중학교 재직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기린여자 중학교
TEL : (0652) 245-5219
휴대폰 : 011-659-7127
호출기 : 015-688-7127

"아는만큼 보인다"의 교만을 경계하며

원도연 (전북대 사회학과 강사, 전, 문화저널 편집장)



나는 문화가 가지는 힘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80년대 길거리에 나붙었던 강렬한 판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대정신을 생각하고 또 무엇인가를 향해 의지를 곧추세우곤 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 문화는 한 시대의 권력을 지켜나가는 마지막 보루로 기능하고 있었다. 문화를 저항의 도구로 파악하는 관점은 또 다른 한편에서 권력을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로 파악한다는 의미와도 통하고 있었다. 무릇 문화는 저항과 순응의 동학(東學)을 양면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20세기는 인류사에서 가장 격변의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적 변동이 20세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곧 역사의 진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놀라운 발전의 뒤안에는 인류가 차마 감당하지 못할 파괴와 고통이 자리잡고 있다. 1990년대는 그 진보와 파괴의 실상이 낱낱히 드러난 시대였다. 그 90년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가장 값진 성과는 어쩌면 그 파괴의 실상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인지 모른다.

내가 알기로 미술은 한 세대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주목하는 예술장르이다. 작가 개개인의 치열한 작가정신과 한시대에 대한 통찰이 그 속에 배어있는 것이다. 미술장르가 갖는 개별성이라는 특징은 미술을 언제나 열린 세계로 이끌어주는 기본적인 동력이다. 수없이 많은 작가들이 그들의 느낌으로 세계를 표현하고 삶을 형상화 한다. 그러나 그속에서 미술은 한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성을 구현한다.

21세기를 몇해 앞둔 지금의 시대를 표상하는 시대적 담론은 혼돈과 무의식적인 무질서속에서 지켜지는 교묘한 균형이다.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인류가 겪어온 불안과 혼란은 20세기의 끝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서도 여과없이 드러난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왔던 그 어떤 세기보다도 문화는 더욱 더 강력하게 그 사회적 역할을 함축하고 있다. 격량의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이르면서 미술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문화가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면서 미술을 통해서 한 시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쩌면 무척 고무적인 변화였다. 미술사를 통해 한 시대를 보고자 하는 시도가 붐을 이루었고, 작품하나하나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같은 시대적 요구에 반하면서 미술은 급격하게 어려웠다. 대중들이 미술에 좀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미술은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중들로부터 멀어져갔다. 진솔한 일상과 삶의 단면들이 그려지기 보다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구조들이 내밀하게 관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90년대 들어서 두드러졌던 문화 영역 전반의 변화는 일종의 과도기적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미술 역시 부분적으로는 자기모순의 함정속에 빠져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90년대를 풍미했던 '아는 만큼 보인다'의 문화담론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의 언술구조는 '보여주는'쪽의 책임이 완전하게 뒷받침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

그것은 모든 문화장르의 작가들이 가지는 상상력의 범주가 시대적인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솔한 삶의 체험들은 대개 보편적이다. 있을 수 있는일, 어쩌면 우리들 가까운 누군가는 꼭 겪었을 법한 이야기들속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얻는다. 자신의 삶과 시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상상력의 범주속에서 작가들의 치열한 창작정신은 대중적인 공감과 감동을 얻는다.

96년 전북미술계는 미술시장의 장기침체와 대형 국제전이 기묘하게 어울렸던 한해였다. 김홍도전이나 여말선초의 미술전, 전라한국화제전 등과 같은 과거로의 여행이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받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 시대를 실감케하는 대형 국제조각전과 도예전들이 시선을 모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북의 땅이 안고 있는 고민과 고통을 주제로 했던 전시나 기획들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회피심리가 무언의 약속처럼 작가들을 얽매였던 것은 아닌가. 90년대 한국경제의 거품현상은 미술작품 가격의 문제만이 아니라 작품의 소재난 주제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모른다. 무릇 학문의 세계이든 예술의 세계이든 현실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은 언제나 상상력을 제한하는 법이고, 그럴수록 남모르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난해한 필법들과 사술이 등장하는 법이다.

한시대를 보수와 진보로 나누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것은 그 시대대로 가치있는 잣대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혼돈의 시대속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참은 무엇인가, 문화는 그리고 미술은 한 시대의 참다움에 다가서야 한다. 20세기가 남긴 인류의 파괴와 고통속에서 우리는 문화가 가지는 힘을 믿는다. 모든 차이를 넘어서 21세기가 가져올 파괴의 실상을 고발하고 인간정신으로 회귀하는 것이 미술의 역할이다. 그러나 한가지, 부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만 고민하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해주기를, 감히 명실상부하게 미술의 문외한인 필자가 잔혹 어줍잖은 이야기들을 했다손 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전북 회화

전북 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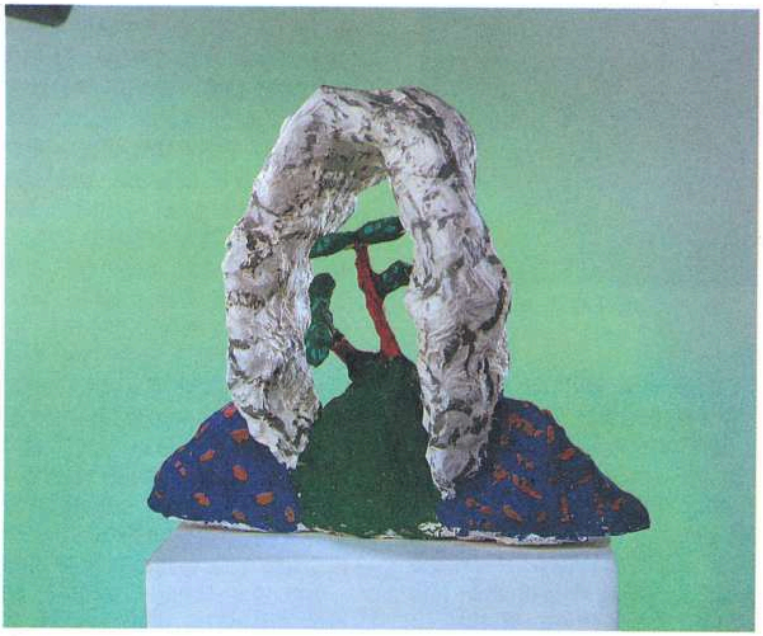
전북 회화회는 전북 지역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현재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및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전 • 북 • 회 • 화 • 발 • 자 • 취

1990. 3.13
전북회화회 구성-고재명, 김자경, 성민홍, 이영현
유선영, 이철규, 이철량, 이희춘, 정미현
1990. 5.31~6.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0. 6.21
신입회원 가입-박인현, 조돈구
1990. 12.29
신입회원 가입- 김경운, 김현경, 문순, 지민수
최전숙
1991. 1.4~5
스케치여행: 해남 대흥사
1991. 3.9~3.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8~6.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15
전북의 산하전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 제: "미술의 구조적 이해 "에 대하여 -
F.B.Feildman저, 김춘일역
사회: 이철량
발제: 지민수, 김현경, 문순, 고재명
1991. 12.14
정기총회: 총무-이영현
신입회원 가입-김경희, 박양수, 안순금, 조현동
1992. 6.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0.21
정기모임-총무 고재명 선출
1992. 12.1~7
교동의 표정展- 얼화랑-주제전
1992. 12.
회원탈퇴-김경운, 박양수, 박인현, 성민홍, 이영현
이철량, 이희춘, 조돈구
1993. 3.
신입회원 가입-방정엽, 임소형, 전양기, 정문배,조양현
1993. 5.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 - 전시장
1993. 6.5
신입회원 가입-이철량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 군산 개야도
1993. 9.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중간전시
1993. 12.
회원탈퇴-김경희
1994. 1.
신입회원가입-모용수, 양현식, 황미경, 이환배
1994.2.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 환영 MT (회문산 자연 휴양림)
1994. 6.15~6.21
정기전북회화회 展(전북예술회관)
1994. 7.29
하계스케치: 동상수련장
1994. 12.14~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 -전북인물 열전
(예루갤러리)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 변산해수욕장
임원선출: 회장-이철규, 총무-이환배
신입회원: 안동선, 김현수, 안윤
1995. 3.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 (전북예술회관)
1995. 3.18
세미나주제: '우리다운' 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수 (미술평론가,동덕여대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 광복 50주년
(기린예원)
1995. 12.22
파출소 그림 걸어주기 (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회원탈퇴:유선영, 최전숙, 안동선, 양현식
김현수, 모용수, 정문배, 조양현, 김자경, 전양기
1996. 1.25
정기모임
임원선출:회장-이철량, 총무-이환배
회화지 편집장-황미경
1996. 6.28~7.4
전북회화회 정기전(예술회관)
1996.12.6~13
전북회화회 테마展
전북문화 유적 기행전(기린갤러리)
1996.12.12
정기총회
회원탈퇴: 안윤, 지민수, 임소형

1996.7.18 ▶ 25.
(전주 얼 화랑)

이철규전



옛날에는 50×30×20 한지 1996.

이철규는 엄밀한 의미에서 동양화가 라고 할 수 있으나 그의 회화세계와 매체를 보면 통상 구분하고 있는 동양화를 떠나서 회화(그림)로 받아드리고 싶다.

그는 주로 순지와 먹을 사용하고 분채(동양화 채색)와 석채(돌가루)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공간 경영에 있어서 여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동양화가 추구하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는 흙가루나 아크릴릭물감,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때로는 그의 회화세계를 입체물로 실현하고 몽타쥬 기법의 사용 등 종래의 동양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훨씬 개방적인 작업조건들 때문에 굳이 동양화라기 보다는 그냥 그의 작업을 회화(그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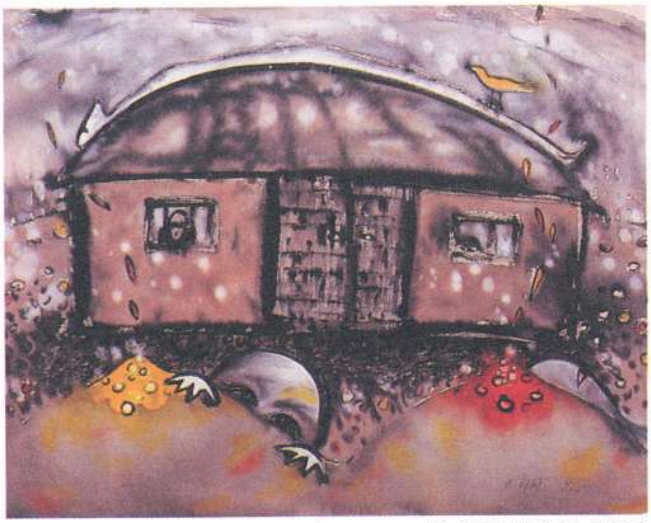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그의 회화는 민화적 요소가 많이 잠재해 있고 동일한 화면 속에 옛날과 현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한가로이 심산유곡을 거닐고 있거나 밭을 갈고 있는 옛사람의 세계에 극사실적인 기법으로 묘사된 현대인들을 볼라치면 당황하게도 한다. 이렇게 그가 화면에서 구사하고 있는 기법도 다양하여서 민화에 나타날 법한 관념화된 청산이나 해와 달, 구름, 소나무, 폭포, 식물 들의 도상적 화법에서부터 세밀하고 극사실적으로 그려나간 인물화도는 먹이 번져나가게 하는 발묵에 이르기까지 그가 동원하고 싶은 모든 기법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그려나가고 있다.

그의 그림은 일종의 기억의 또는 사념의 근원으로부터 표출된 회화 그자체의 세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먹의 톤으로 그려진 부분과 채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혼재하고 있음도 종래의 동양화가 채색화냐 수묵화냐 하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대부분 그가 그린 청산은 신선한 느낌으로 충만하고 바로 그 자연과 인간이 일체를 이루었던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오염된 세계에 있고 그가 그린 청산의 세계는 높고 깊은 자연의 신선함으로 가득하고 적송은 가장 최고의 충만한 색채로 있는 것이다. 전북 회화

이건용 (군산대학교수)

정미현전

1996.11.27 ▶ 12.3
(전주 얼 화랑)



꿈 천에수묵채색 1996.

일상에서 얻어낸 감상언어

화가는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의 꿈을 갖는다. 편안한 삶과 행복 그리고 영원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와 설계를 통해 꿈을 만든다. 이러한 꿈을 통해서 어쩌면 인간은 고독한 삶을 잠시 잊어 버리게 되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화가는 매일 매일의 꿈을 꿈으로만 남겨 두지 않는다. 끝없이 꿈을 화면에 형상화 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독특한 꿈을 전달하고 일상에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는다. 정미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정미현은 그동안 주변의 일상들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투영해 왔었다. 그의 일상들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통해 들여다 보는 자신의 얼굴에서 부터 가족들 그리고 출퇴근 길에 무심코 지나칠 수 없었던 산봉우리와 나무, 숲까지 모든 것들이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그 자신에게는 거대한 가치로 혹은 은밀하고도 달콤한 꿈의 세계로 엮어져 있었다. 그의 화면에 등장했던 일상의 모습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도 다가왔다. 사라져간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미현의 작업에서는 한층 더 두드러진 독자적 체험을 전개하고 있다. 정미현의 작품을 들여다 보면서 우리는 마치 그의 가슴속에 깊숙히 묻어 두었던 숨겨진 일기장을 꺼내 보는 즐거움을 갖는다. 그것은 그의 작품이 생활에서 얻어낸 여러가지 삶의 편리를 움켜쥐고 있는데서 그렇다. 작가의 일상적 생활에서 얻어낸 작품의 테마들은 한결같이 굵고 힘있는 먹선으로 이루어진 여러 형상들이 먹의 선염과 담채가 어우러지는 기묘한 감각속에서 은근하고도 뚜렷하게 보는 사람의 일상의 관념을 일깨운다. 그의 주제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독특한 삶의 체험으로 얻어낸 일기들이지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이다. 더욱이 그와같이 가정을 꾸리는 주부이며, 어머니 그리고 사회에서는 교사로서의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뭇 여성들의 웅변이기도 하다.

정미현은 그의 인생에서 또하나의 힘든 고개를 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이 고개는 많은 여성작가들이 넘지 못한 고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훌륭하게 30대 중반에 들어서는 주부작가의 고통과 번민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된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고통 그 자체를 작품의 테마로 끌어내는 용기와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 이것은 그가 한 작가로서 자신을 엮어내는 튼실한 과정에 들어서고 있음을 뜻한다.

이번에 보여지는 그의 작품들이 "꿈" "꿈을 꾸는 여자"등의 표제를 달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작업세계가 이전의 모습과 상당히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자신의 내면세계로 깊숙히 천착해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덧 30대 중반으로 내려가는 인생의 성숙함이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그는 대학 졸업후 10여년간 대부분의 여성작가들과는 다르게 꾸준한 작업과정을 보여 주었다. 그의 남다른 작업에 대한 열정은 이제 또 한번의 고독한 독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사이 그는 가정을 가진 주부로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혹은 교사로서의 다양한 삶을 엮어내며 작업해 왔다. 이러한 그간의 그의 삶은 어쩌면 처절한 투쟁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작품들을 읽어 보면서 편안함에서 오는 나른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는 무한히 현실을 일탈하고 싶은 그의 또다른 꿈의 세계를, 현실을 비판적으로 반추하는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는 어느덧 삶이 결코 편안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고뇌하고 극복해야 하는 피곤한 모습이라는 것을 들여다 보고 있는 나이에 와 있다는 자신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형태는 그의 개인적인 체험의 과정이면서 또한 우리 모든 이의 인생의 역정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그는 또하나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의 작품속에 무수히 들어나는 눈동자를 통해서 그리고 작품표제에서 볼 수 있는 듯이 "시선" 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동경과 희망 그리고 불확실한 인생에 대해 냉철한 자신의 가슴을 들여다 보는 눈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시선은 어느 곳으로 인가 들여다 보는 것을 뜻한다. 그의 작품을 들여다 보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을 향해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눈임을 일깨운다.

이번 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변화는 이전의 작품에서 보다 현상이 두드러지고 또한 메세지가 풍부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마치 생활일기를 쓰고 있는 듯이 보여지는 이번 작품들이 형상의 표출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어느면에서 작품의 주제가 더욱 선명해 지고 있다는 반증이리라. 그러면서 그가 천위에서 유연하게 번져가는 먹의 선염을 통해 화면을 낭만적이며 어떤 독특한 환상의 세계를 일구어 내고 있는데 이는 그가 일상을 통해 꿈꾸고 있는 어떤 내밀한 자신의 세계로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

그의 화면은 줄곧 천과 먹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 왔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먹은 화선지에서만 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정미현은 대담하게 천을 선택하고 수묵을 통해 그의 삶을 기록하는데 성공해 왔다. 그가 천을 선택하고 또 먹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그 나름의 전통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천과 수묵에 대한 꾸준한 방법적 천착을 통해 본래 수묵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신세계를 잃지 않고 있는 점에서 그가 전통에 대해 남다른 이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화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묵은 선염이 주가 되고 있다. 자유자재로 운용되고 있는 선염의 화려한 번짐속에 형상은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모습이다. 어떻든 정미현의 그림은 이제 그동안 보는 그림에서 읽어내야 하는 그림으로 변해 왔다. 다시 말하면 그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리고 이웃사람들의 삶에 대해 반추해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미현은 어쩌면 이점에 대해서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그는 그의 순수한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삶을 되새기게 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깊숙히 묻어 버렸던 일상속의 자신을 주어 올리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전북회화

이 철 량

교동에 서린 안개

이 철 량



교동풍경

우리나라의 도시 중에서 전주 만큼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도시의 인상을 갖고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마치 우리 모두의 (전주를 다녀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마저도) 오랜 고향처럼 가슴속에서 향수가 우러나는 곳 이라고 느끼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것은 아마도 한반도 혹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숨결이 깊숙히 베어 있는 때문일 것이다.

실상 전주의 오랜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한민족의 식량의 대부분을 공급했던 드넓은 곡창 만경평야를 뜰앞에 두고 자리잡은 전주는 옛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반도를 삼분했던 백제의 부활은 꿈꾸었던 견훤이 후백제의 깃치를 올렸던 곳이 전주이다. 그것은 그만큼 당시 대규모의 도시로써 문물과 인구가 밀집해 있었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였음을 증명한다. 그 넘치는 팔팔한 기상 때문에 고려시대 이후 배척의 땅으로 따돌려 지기도 했으나 조선 오백년 왕조의 발원지로 다시 역사의 땅으로 떠올라 오늘에 이른다. 언제 다시 그 기운은 솟아 오를 것인가. 현대사의 뒷켠에서 쓸쓸히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주는 그래도 포근하고 따뜻함 만은 잃지 않고 있다.

조선왕조의 큰 자취를 지금은 많이 잃어 버렸지만 그래도 그 체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 교동이다. 교동은 아직도 고즈넉한 한옥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 앉아 있어서 우리의 옛마음을 더듬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동은 그 한옥만으로만 말해질 수 없는 전주의 명소이다.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오르내리다 톨게이트를 들어서면 호남 제일문이 전주의 고풍스런 전통의 도시임을 일깨워 준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은행나무길을 줄곧 내달리면 안내판에 경기전이 그리고 그 오른쪽 방향으로 풍남문이 있음을 알린다. 이곳이 교동에 들어 섰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노오란 은행나무잎들이 바람에 날리기 시작하는 가을의 중턱에서 그리고 아침의 깊은 가을안개가 채 걷히기 전에 발길을 당긴다. 경기전과 풍남문은 동•서로 마주 보고 서있다. 풍남문은 전주의 동•서•남•북문 등 4개문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며 전주시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풍남문을 한바퀴 돌면서 시장거리의 정취에서 옛날 성문밖 민가의 저자거리를 느껴 봄직도 하다. 이렇게하여 동쪽으로 나아가면 고풍스러운 근대초기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성당이 교동으로 들어서는 정취를 풍겨내고 있다. 경기전은 이렇게 들어서는 교동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데 새로 단장한 분칠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아 낯설어 보이지만 그득한 안개와 세월의 냄새가 얽혀 시간을 거슬러 역사속으로 들어 서기에는 충분한 자태를 첫걸음에 느낄 수 있다. 큼직큼직한 느티나무 숲이 바깥뜰에 가득차고 발아래 밟혀지는 낙엽의 깊숙한 발길은 도심속의 아름다운 낭만이며 세월의 깊은 정을 풍겨준다. 정문을 들어서서 이렇게 느티나무 숲에 안기면 제일 먼저 반기는 홍살문은 다소 엉뚱하다. 이자리에 서 있는 홍살문의 내력을 아는 이가 없다. 벌써 가을바람이 찬데도 평상에 몸을 맡기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 그들도 홍살문의 내력은 모르신다. 늙은이들의 쉼터이며 젊은이들의 사랑의 꿈을 엮어주는 뜰이기도 하다. 결혼식을 앞둔 사랑꾼들이 백옥같은 날

개를 펼치고 사진 만들기에 마음이 바쁘다.

전주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이기에 충분하다.

붉고 넓다란 대문이 굳게 닫혀있는 중문 안쪽에는 바람결에 정신을 놓고 있는 대나무 숲이 무성하고 늘 푸른 소나무가 넉넉한 품으로 서있다. 담장너머 고요한 숨결을 바라보며 경기전의 내력을 읽어낸다. 전북 무형문화재 제 2 호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전은 역사의 자랑스러운 자리이다. 1410년 그러니까 태종 10년에 조선조를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모시기 위해 창건되었다. 이태조의 영정은 우리나라에 다섯군데에 봉안 되어져 있었다. 개성과 영흥, 경주, 평양과 함께 전주 경기전이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경기전이라 불려지기는 세종 24년인 1442년이었다. 이렇게하여 조선조때 성스러운 민족의 성전으로 자리잡았던 경기전은 민족의 수난의 역사를 따라 고초를 겪었다. 전주 경기전은 선조 30년인 1597에 발발했던 정유재란때 불에 타 소실되었다. 그러나 전주를 제외한 다른 4곳은 훨씬 이전인 1592년 세종24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에 의해 소실되고 말았다. 일제는 이미 이때 부터 우리 민족의 혼을 말살하기 시작했었다. 그들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이 베어있는 곳은 어김없이 훼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진란때도 살아남았던 경기전은 정유재란때 결국 훼손당했지만 1614년 광해군은 전주 경기전을 복원했다. 그것은 5곳의 어용전중에 유일하게 전주만 복원했다. 그것은 전주를 조선조의 출발지로 삼았던 때문이었으며 그 정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태조의 영정을 바라볼 수가 없다. 경기전은 지금 한창 복원 중이기 때문이다. 일제는 한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또다시 경기전을 훼손했다. 한일합방 이후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일제는 일본어를 가르쳤다. 지금 우리는 해방 5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본래의 모습을 볼 수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경기전의 본래의 모습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오래지않아 경기전 드락에서 이성계가 쉬어 갔다는 오목대와 더 멀리는 남고산을 바라 볼 수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커다란 건물들이 가로막아 건너편에서 흐르는 전주천의 물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가슴속에는 그 옛모습을 그리며 전주천을 바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일제시대에 세워졌을 앞문 건너편 낡은 집들이 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었다. 무심하게 원고지와 볼펜을 팔고 있었던 문방구 아주머니는 경기전의 아픈 내력을 그리고 그곳에 서려 있었던 역사의 혼을 알고 있는지 모를 일이였다. 더욱이 뜰 한쪽에는 마치 사찰입구에 세워져 있을 것 같은 부도 모양의 탑과 비가 세워져 있는데 다름아닌 예종대왕의 태실과 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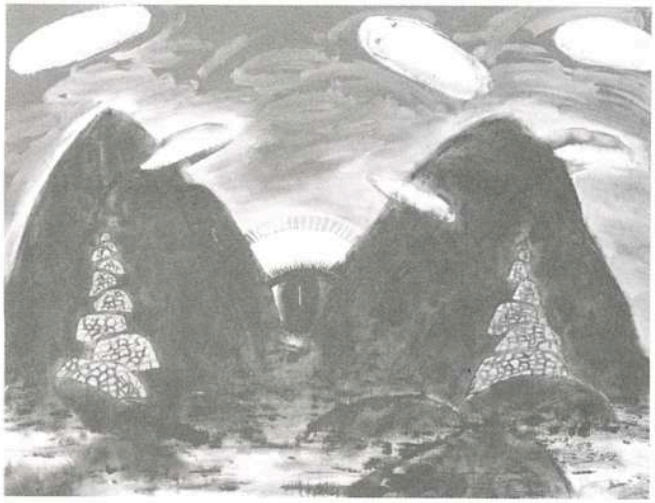
구이면 태실부락 뒷산에서 옮겨져 왔다는 이 태실은 8각형의 석난간을 만들고 그안에 안치했다. 그리고 음각으로 쓰여진 6자의 해서체 글씨가 정갈하고 소담하게 "예종대왕태실"이라 읽혀진다. 경기전의 바람이 숨을 죽이고 고요하게 가라앉는 사연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경기전의 동쪽 담장길을 넘어서면 곧바로 교동의 한옥들이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른 아침 젖은 안개를 몰아 대고 있는 아침 햇살이 골목골목에 비쳐들고 부지런한 어른들은 바쁜 걸음을 몰아댄다. 맑은 햇살에 비쳐지는 토담의 황토빛은 전주의 빛깔이다. 농토의 빛깔이며 저항의 빛깔이다. 이 황토빛에 영혼을 담았던 전라도 사람의 가슴이었다. 작은 골목들을 돌면서 햇살을 받아보았다. 이 햇빛에 희망을 불태웠던 옛사람들이 아직도 이 골목길을 걷고 있는 듯 했다. 나즈막한 담장 너머로 들여다 보이는 처마끝이 땟국물에 젖어 있는 모습에서 그들의 가난을 보았다. 그들은 그동안 가난해졌다. 그러나 겹겹이 그리고 닥지닥지 붙어있는 칙칙한 가난의 때는 우리 역사의 흔적일 것이였다. 현대화에 쫓겨난 역사의 가난이 아니며 우리가 숨쉬고 살았던 숨결의 흔적임에 다름 아니었다. 이제 전주에 들어서면 그 어디에서 유구한 삶의 자국을 얻어 낼수 있을까, 우리는 문명의 가슴앓이를 어디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 풍남문에서 경기전으로 그리고 교동의 황토빛 담장을 매만지며 문명의 피로를 털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향교도 교동에 있다. 그리고 강암 송성룡의 기념 서예관이 있다. 그리고 아직도 교동의 숨소리는 전주천의 물소리를 타고 들려온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제 힘이 없다. 전주사람들은 그동안 몇가지의 잘못을 하고 말았다. 전주천의 맑은 물소리가 전주 남원간 고속화 도로를 만들어 자동차 소리에 막혀버리고 말았다. 그 길은 남고산에서 내려오는 다람쥐도 막아 버렸다. 동편에서 떠오르는 아침햇살의 정기를 높다란 호텔건물이 막아버리게 되었다. 경기전 길 건너편에 높직한 학교를 신축하여 한옥들의 정갈한 풍광을 막아 버리고 말았다. 바람과 새들은 점점 교동을 피해가게 되었다. 사람들도 점점 교동을 떠나가게 되어 버렸다.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 가면서 우리의 역사도 사라져 가고 있다. 그리고 조상의 숨결도 영혼도 정신도 떠나가고 말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경기전 돌담을 걷게 하면 좋겠다. 많은 노인들에게 느티나무 숲의 그늘을 주고 교동의 흙담장의 황토빛을 쬐여 주자. 그렇게 하여 건강한 전주를 교동에서 찾아 보았으면 좋겠다. 전북 회화

마이산 기행

정 미 현



마이산 116×91 천에수묵채색 1996.

음향의 조화가 이루어낸 자연

새벽부터, 가을비가 내렸다.

문화원에서 수몰지역 학생들에게 진안 향토 명승 고적지를 답사시켜 주기로 하여 모두들 잔뜩 기대한 탓인지 가뭄의 단비임에도 반갑게 느껴지기 보다 걱정스러움이 앞섰다. 잔뜩 찌뿌린 날에 아이들을 인솔하고 다니는 일이 걱정도 되었지만, 12월, 테마전에 소재로 남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번 답사에 기대가 컸던 까닭이다.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은 문화원에서 제공한 관광버스를 타고 첫번째 도착지인 북부 마이산을 향하였다. 내가 진안에 교편을 잡고 이곳에서 생활한지도 여덟해를 맞이하였으니 진안의 명물인 마이산은 너무도 친근하고 다정함을 자아내는 곳이 아닐 수 없다. 마이산은 그 생김새가 기이한 만큼 그 이름도 가지가지이다. 마치 먹물을 찍은 붓 끝 같다 하여 문필봉(文筆峯),바위로만 되어 있는 산이라 하여 개골산(皆骨山),하늘로 우뚝 솟아있는 모양 때문에 돛대봉등등 , 또한 계절별로 봄에는 돛대봉, 여름에는 용각봉(龍角峯), 가을에는 마이산, 겨울에는 문필봉이라 부르기도 한다. 시대별로는, 신라시대에는 서다산(西多山), 고려시대에는 용출산(聳出山), 조선시대 태조 때에는 속금산(束金山)이라 했다. 오늘의 마이산(馬耳山) 이라는 이름은 태조 이성계가 고려조 장군이었을때, 마이산을 지나다 이산을 두고 시를 지었다 하는데,

"東으로 달리는 天馬 이미 지쳤는가
갈길은 먼데 그만 쓰러지고 말았구나.
연인(涓人)은 몽통만 가져가고 두귀는 남겼는가.
두 봉우리 이루고 하늘로 솟아있네,"

후일에 태종이 이곳에 왔다가 부왕의 이 시를 보고 "馬耳山"이라 명명하였다 한다.

출발한지 20여분이 지나도록 비는 그치지 않고, 빗 줄기는 더욱 굵어져 걱정스러움에 창 밖만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그래도 모처럼 나들이인지라 마냥 즐거운지 요즘 유행하는 최신가요를 크게 틀고서 신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천진함에 웃음이 나왔다. 이제 버스는 정천면을 지나 읍내로 들어섰다. 진안읍에 다다르면서 그 자태를 들어내는데 이쪽에서 바라다 보는 마이산의 모습은 멋진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진안읍에서 남서쪽 약 4Km, 전주에서는 동쪽으로 약40Km되는 지점에 양산맥이 마주칠 듯 접근하는 좁은 평원에서 양산맥과의 사이에 홀로 돌출한 水成산괴로 마치 달걀을 옆으로 놓은 듯한 타원형 모양으로 東으로는 흔히 말귀처럼 우뚝 솟은 생김새가 '馬耳山'이라는 이름에 고개가 끄덕거려진다. 두 봉오리로 된 표고 673m의 바위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광대봉 609m의 그로테스크(grotesque)한 모습으로 솟아있다. 이 괴기한 모습의 봉우리에 아득한 옛날 두 남녀의 전설을 떠올려보며 그럴싸한 전설임에 웃음을 자아내는 '멋' 이 있는 산이다.

"아득한 옛날 남녀 두 山神이 이 곳에서 자식을 낳고 살았다 하는데 등천할 때에 이르러 男神이 이르기를 우리가 등천하는 모습을 아무도 봐서는 안되니 밤에 떠납시다. 하였으나 女神은 밤에 떠나는 것은 무서우니 새벽에 떠나자고 했다 한다. 그러나 새벽에 떠날즈음 마침 새벽 일찍 물길러 나왔던 동네 아낙이 등천하는 두 산신을 보고 놀라 소리치는 것을 듣고 등천이 틀린 것을 안 남신이 화가나서 「여편네 말을 듣다 이 꼴이 되었구나」하고 여신으로 부터 두 자식을 빼앗고서 발로 차버린 그 자리에 '바위산'을 이루고 주저 앉았다 한다". 이것은 구전되어 내려온 전설이지만 이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모습이 동편의 아빠봉에 새끼봉이 둘 붙어있고 서편의 엄마봉은 죄스러워서인지 수치심에서 인지 반대편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이라 전설의 그럴싸함에 딱 드러맞는 夫婦峰 이다.

출발한 버스는 이제 북부광장에 도착 하였다. 차에서 내린 아이들은 비옷을 하나씩 걸쳐입고 첫번째 답사지인 은수사를 향해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새벽부터 내린비에 축축히 젖은 숲속의 계단을 오르는 재미는 가을의 단풍이 절정에 이른 시기인지라 더욱 멋을 돋구어 주었으며 갑자기 떨어진 기온탓에 일찌기 떨어져 뒹구는 울긋불긋한 낙엽을 밟으니 상쾌함과 호젓함에 젖어 무척이나 기분이 좋아졌다. 콧노래가 절로나와 나의 즐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사이에 계단을 다 오르고 왼편으로 꺽어져 운수사에 이르렀다. 이곳 저곳 탐색하는 동안 이 곳의 주지스님이 나오시어 이 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마이산이 조선왕국과의 깊은 함수관계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는 '몽금척도'(夢金尺圖) 를 보여 주시며 조선기 창업때의 영산으로 대접받았음을 은근히 자랑하시며 이곳 산의 영험함을 말씀하는 스님의 얼굴에서 조선의 건국 태조인 '이성계 ' 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몽금척도에 담긴 뜻을 되새기며 다음 목적지인 탑사를 향해 500m정도 걸었을까? 마이산의 장관인 탑사의 경관이 펼쳐진다.

자연이 만든 최고의 걸작이 마이산이라 한다면, 인간이 만든 다음의 걸작은 역시 마이산 탑군 (塔群)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거의 90°로 직립한 엄마봉의 남쪽바로 아래에 펼쳐져 있는 탑의 무리는 자연석을 차곡차곡 쌓아 고드름을 세워 놓은 양 날카롭고 정교하며 위엄있게 조화를 이루며 배열되어 있다.

특히 마이산이 부부봉 이라면 이 천지탑이라 불리는 탑모양 또한 부부의 탑인 쌍탑을 이루고 있어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는 알수 없지만 기실 음양오행의 조화로 이루어진 명산이요 명탑이 아닐 수 없다.

우뚝 솟은 산아래 잘 빚어 놓은듯한 탑의 무리를 뒤로하고 내려오며 새삼 그 모습에서 지나쳐만 왔던 이웃과 깊은 얘기를 나눈것만 같은 다정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이러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 일행과 함께 부부시비 광장을 거쳐 금당사와 고금당 나옹암, 태자굴과 이산묘를 돌아본 뒤 다음 유적지를 향해 차에 올랐다.

어느덧 시간은 정오를 지나고 있었고 짖궂게 내리던 비도 그쳐 있었다.

진안이라는 곳에 오랜시간을 보내는 동안 타지에서 친•인척이 방문할때면 으레 이곳에 모시고 오곤 하였지만, 그저 이곳이 말귀같다하여 '마이산' 이라부르며 이 탑은 이갑용이라는 분이 이곳에서 도를 닦으며 쌓아올린 신비한 탑사라고 조금은 아는것처럼 나의 귀동냥의 얄팍한 지식을 전하곤 하였다. 그리곤 타포니현상이 많은 그 괴산과 무리지어 놓여있는 탑사를 내려오며 돌을 하나 집어 무심코 올려 놓곤 하였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니 괜시리 양쪽 귀가 불그레지는 것만 같았다.

이번 답사를 통해 이곳, 명소들의 이해를 다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에 진안문화원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이 글을 읽는 이에게 마이산이 자연이 빚어낸 걸작품인 명산으로서의 가치와 이해를 높힐 수 있었으면 한다. 전북 회화

고향의 감미로움을 담은 고창 선운사"

이 환 배



고창선운사에서

첫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약간은 막연하다. 이미 지나간 여행이지만 누군가 여행의 묘미를 물어보면 나는 서슴없이 고창 선운사에 웅장한 기품을 느껴보라고 말한다. 선운사는 지리적으로 전주와 가깝고 봄에는 동백꽃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번 여행에서는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선운사 동구 길가의 밭 한 모퉁이에 서정주가 미당이었던 시절에 쓴 선운사 동구라는 시의 육필 원고를 그대로 새긴 미당시비가 세워져 있어 동백꽃의 찬란함을 상기 시킬수 있게 해 주었다.

전주에서 선운사까지는 약 2시간 30분쯤 걸리는데 가는 도중 차창가로 보여지는 전원 풍경은 한폭의 산수화 처럼 펼쳐져 있어 고향가는 기분이 든다. 선운사 뒷산 도솔산의 높이는 한라산에 비하면 턱없이 낮지만 지표가 거의 해면과 같기 때문에 산정상까지 올라가야 할 거리는 무시할 수 없다. 도솔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낙조대를 보라고 권하고 싶다. 웅장한 암석들이 한국의 미를 자아내면서도 오르는게 험하지 않는 평온한 풍경이 자랑스럽고 칠산 앞바다의 장관으로 펼쳐지는 석양이나 노을은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선운사로 들어가기전에 그곳의 창시설화를 사적기에서 알아보면 577년에 백제의 검단산사가 신라의 의운조사와 합력하여 신라 진흥왕의 시주를 얻어 개창하였다 한다. 본래 이지역에는 도적이 많아 검단이와서 이지방에 소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생업을 삼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설화보다는 사실인 것 같다. 선운사는 검단이 세운 백제의 고찰이다. 스님들의 포교 활동은 현실적 이익을 베풀면서 시작했다 하며 보은염으로 이곳 사람들이 선운사에 소금을 시납했다 하는 사실로 뒷받침 할수 있다. 선운사 중턱 도솔암이 있는 칠송대라는 암봉의 남쪽벼랑에는 거대한 여래상이 새겨져 있다. 깎아지른 암벽에 새겨져 있는 이 암각 여래상은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불상인 것 같고 그 양옆에는 멋들어진 소나무 한쌍이 있어 암각 여래상의 멋을 한층 돋구어준다.

이것은 원만한 인상이거나 부드러운 미소를 띤 일반상들과 달리 우람하고 우직한 인상에다 젊고 능력있는 남성의 활기를 나태내고 있다. 지금 여래상 위쪽에 누각 모양의 보호각인 달집이 있었던 것은 사라지고 바위구멍에 부러진 나무가 박혀 있는 모습으로 무너진 흔적만을 남기고 있다.

아무런 예비지식없이 선운사를 찾는다면 추사 김정희가 쓴 백파선사의 비문만은 알고 있었음을 안다. 선운사 입구 울창한 전나무 숲속에 자리잡고 있는 부도밭 가운데에 새까만 비석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는 "화엄종주 백파 대율사 대기대용지비"라 쓰여있는 그 글씨가 힘차고 굵게 새겨놓아 추사 김정희 필체의 굳센 필력을 실감하게 해 주었다.

대웅전 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세칸짜리 스님방은 또다른 여행의 감칠맛을 돋구어 준다. 그 조촐하고 조용한 예술미는 어수선해 보이고 무언가 산만한 생활속에 취해 있는 내게 반성의 현장과 건실된 미적 기준치를 말해 주는듯 했다. 조용한 작은집이라는 뜻에 걸맞는 사랑스런 조촐한 건물이 지금은 관웅전으로 개수대어 있었다. 우람한 대방의 창방사이에 빼꼼히 끼여 있는 현판 "정와"마치 매미처럼 매달려 있을 뿐이다.

선운사는 그말 자체다. 불교적인 인상과 스님들의 향취가 가득배어 나온다.

1박 2일의 짧은 여정으로 전주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해 느즈막이 선운사에 도착하여 그곳의 기풍과 조용한 정서를 느끼며 이튿날을 준비했던 내게 결코 그곳은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다. 옛시인들의 정취와 현대인의 개성을 비교해 볼 수 있었고 내자신의 고찰과 반성을 더불어 알아볼수 있었던 희망찬 곳이었다. 현대사회에 찌들고 물질에 편협한 여행에 지쳐있다면 그런 누군가에게 고창선운사를 다녀오라고 전하고 싶다. 그곳을 떠나오며 내뒤로 손을 흔들어주던 선운사의 애정과 가을녘의 넉넉함의 향취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전북 회화

이 환 배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 모악산 숨결전 (96, 기린예원)
- 산들바람전 (96, 기린예원)
- 전북회화전(96, 전북예술회관)

現: 전주예고 강사, 동국회화회, 의식의 새물결회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8-5 3,4층 꿈꾸는 연필 입시미술학원
☎ (0652) 83-6512
전주시 중화산동 은하아파트 1/108 지하작업실
☎ (0652) 221-1562

왕궁리 오층 석탑 (王宮里 五層石塔)을다녀와서

이 철 규



옛날에는

늦 가을 치고는 화창한 일요일이다. 오후에 집사람과 두 딸을 데리고 왕궁리 오층석탑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전주에서 삼례를 거쳐 익산쪽으로 10여Km 가다보면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유적지가 나온다. 가는 길 간간이 요업 공장들이 들어 서 있다. 도로 옆 잡초 사이로 보이는 흙들은 참으로 붉은 황토이다.

이 길을 2년 동안 매주 한번식 지나오면서 수 없이 "왕궁리 오층석탑"이란 표시판을 보아 왔건만, 한번 들러야 할텐데... 하면서 미룬 것이 오늘에서야 그 뜻을 이루게 되었다. 왕궁리 오층석탑의 소재지는 익산 왕궁리인데 익산은 우리나라 역사상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 이르러 이지역은 백제 말기의 선도, 즉 別都가 경영된 곳이며, 그 사료가치가 높은 곳으로 미륵사지탑 등 백제시대의 유적들이 많은 곳이다. "왕궁"(王宮)은 말 그대로옛 백제의 왕궁이 있던 "터" 였던 곳으로 지금까지 왕궁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옛 백제의 영화의 터, 이름 그대로 백제의 옛 고도, 왕궁이 있던 곳.... 옛 왕궁의 자취는 없어졌지만 그 혼만은 살아 있는 것 같은 고장이다.

주차장에서 내려 조그마한 소나무 숲을 지나면 앞 쪽에 석탑이 아스라이 눈 앞에 들어온다. 어느 곳에서 날아오는지 수 많은 무당벌레들이 날아와 온 몸에 내려 앉는다. 왼편에는 조그마한 소나무 숲이 자리하고 있는데 화창한 일요일이라 그런지 몇몇 가족단위로 야외식사를 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연인들도 쌍쌍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여유 있는 모습들이다. 오른편에는 대조적으로 철조망으로 굳게 둘러쳐져 있는 유적 발굴단 조립식 건물들이 서너 동 들어서 있는데 인적이 없어 적막한 느낌을 준다. 지금은 발굴이 중단되었는지 인적 하나 없이 굳게 자물쇠로 채워져있었다. 자문좀 구할 요량으로 발굴단 사무실을 찾아가 보았으나 역시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처음 본 왕궁리 오층석탑은 백제 예술의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으며 단아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는 석탑이었으며, 미륵사지 오층석탑과 그 건조양식이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익산의 眞山인 乾子山에서 남으로 뻗은 낮은 언덕끝에 자리잡고 있으며 일찌기 내외학자로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었으며, 많은 논의가 되었던 석탑이다. 1967년에 해체 수리되어 내부에서 금판 금강경(金剛經)과 금제 사리탑(舍利搭)등 많은 귀중품이 출토되었고 동시에 그 이전까지 토탑을 이루었던 기탑부가 밝혀져 단층기단으로 복원되었다. 이 탑은 고려초 10세기 경 작품으로 추정되며 높이 8.5M이다. 이탑의 양식은 주로 충청, 전라등 백제의 고토에서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이나, 익산의 미륵사지 오층석탑등 백제 작품을 본뜬 백제식 석탑의 대표작이라 볼 수 있다. 이 탑 주위로 발굴작업의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 십여채의 집 터들이 발굴되어 있었다.

이곳 왕궁리에서는 수 많은 문화 유적들이 묻혀있는데 밭을 갈거나 개간할 때 지금도 수시로 많은 유물들이 출토된다고 한다.

돌아오는 길 - 다음에 다시 올 기회가 있다면 하루빨리 완벽하게 유물들이 발굴되고, 복원되어 옛 백제의 영화를 다시금 피부로 느껴보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려본다.

한적한 작은 솔밭 언덕위에 외로이 서있는 왕궁리 오층석탑 ! 옛 백제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백제왕궁의 위엄을 지키려는 듯이 소나무 잡목사이에 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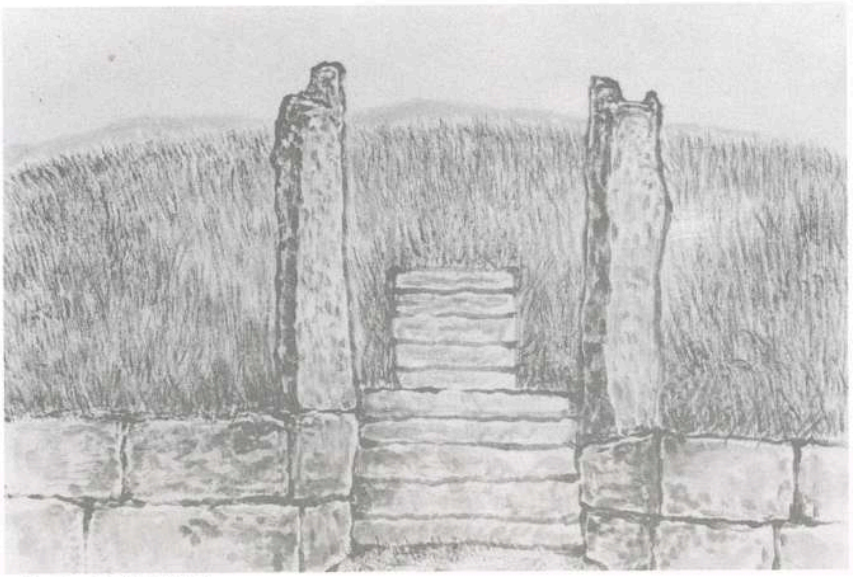
왜 이리 오늘따라 유난이도 탑 주위로 무당벌레들이 수없이 날라드는지..... 전북 회화

96. 11. 11

왕궁리 오층석탑 유적지에서.

벽 골 제 (碧 骨 堤)

방 정 엽



벽 골 제 (碧骨堤)

일요일 오후 동진강을 돌아 벽골제에 갔다.

이제는 잊혀진 작은 무덤처럼 고요한 옛 도작문화(盜作文化)의 중심지인 벽골제. 金堤에서 화호, 부안으로 가는 국도를 따라가 보면 부량면 포교리(일명갯다리)에 이른다. 이표고리에서 남쪽 명금산의 북단까지 엇비슷하게 남쪽으로 곧게 뻗어 있는 뚝(堤防)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벽골제 제방이다.

이곳의 지형(地形)을 살펴보면 모악산의 동쪽에서 갈리어 나온 산자락은 낮은 언덕을 이루며 이서, 금구, 용지, 김제시내, 월촌동을 지나 표교리의 초혜산 (신털미산)에 이르러 멈췄고 상두산 뫼뿌리에서 뻗어나온 또하나의 뫼줄기는 금산면과 정읍 옹동, 감곡면을 거쳐 부량면 영금산에 이르러 멈춘다. 그리하여 이 두 뫼줄기 사이에 펼쳐진 넓다란 平原인 이 두 지점에 이르러 마치 병목처럼 가장 좁은 地形을 형성하는데, 바로 이곳에 저수지의 뚝을 쌓았으니 先人들의 슬기에 오직 감탄할 뿐이다.

내고장 金堤는 도작문화(稻作文化) 의 발상지요, 호남평야의 중심지다. 三韓時代에는 벽비리국, 백제때는 벽골군(碧骨郡)인데, 이는 벼의 고장 즉, 볏골이란 뜻으로 벼농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국내 최고 최대 (最古最大)를 자랑하는 저수지 벽골제가 이 고장에 있기 때문이었다.

김제평야를 흔히 '징게 맹경 외배미들' 이라고 말한다.

'징게 맹경' 은 김제, 만경을 일컫는 말이고 '외배미들' 은 '너른들' 곧 평야를 일컫는 말로 일망무제 (一望無題) 끝없이 펼쳐진 들이 마치 '외배미(한필지)' 같다 하여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 이 평야에 축조된 벽골제는 백제시대에 축조되었다고 하며 우리 古語로 벽골의 둑이 한자로 碧骨堤라 표기된 것은 이두 표기에 기인한 듯 하다.

벽골제는 오랜세월을 두고 몇번의 보수공사를 했는데 특히, 신라 원성왕 시절 보수공사에 얽힌 단야 설화는 지금도 해마다 행사를 할 만큼 유명하다. 내용인 즉, 서라벌의 원덕랑이라는 유명한 토목 기술자를 초빙하여 벽골제 보수공사를 할 때에 심술궂은 청룡이 나타나서 자꾸만 둑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이는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아 그러는데, 마침 원덕랑의 연인 월내 낭자가 찾아오자 김제 태수가 낭자를 제물로 쓰고자 하였다. 이를 안 태수의 딸 단야는 월내 낭자 대신 변장을 하고 있다가 청룡에게 제물로 바쳐서 그 둑이 완공되었다는 설화이다.

이에 후세 사람들이 단야의 넋을 기려 제사를 지냈고 현재에도 벽골제와 단야를 기념하기 위한 여러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듯 유명한 벽골제는 몇번의 보수공사를 반복하다가 조선 세종때 큰 폭우로 인해 둑이 무너졌으나 그대로 방치해 완전히 결궤(決潰)되고 말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는 수문지주 만이 남아 그 흔적을 말해 주고 있을 뿐이다.

세월의 무상함 속에 옛 영화는 찾기 어렵고 나날이 몰락해 가는 농촌과 더불어 찬란했던 도작문화도 쇠퇴되고 말았으니 언제 다시 옛 영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둑위에 바람이 분다.
돌아서는 발걸음은 착잡하다.
단야 아가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다시 살아 오르는 시절을 볼수 있을까..... 전북회화

변산반도

고 재 명



격포 채석강에서 10F 한지에 수묵담채 1996.

변산반도!

전주에서 김제를 지나 구불구불한 23번 국도를 거쳐 30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나의 외갓집 같은 푸근함이 와 닿는다. 내가 어렸을 적 김제군 광활면이 나의 외갓집이 있었던 터라 수 없이 많이 와 봤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다. 그래서인지 이곳을 지날때면 그때의 추억이 되살아나곤 한다.

11월의 찬란한 가을 햇살의 따사로움과 정취를 느끼며 들과 산을 지나다 보면 변산 해수욕장을 채 못미쳐 계화도 간척지에 다다른다. 이곳은 1960년대부터 좁은 국토 이용 및 경제개발의 일원으로 시작된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전에 생긴 간척지인 계화도 간척지는 1962년에 섬진강 수몰민들이 이주해서 2700만 헥타아르에 이르는 광활한 토지를 경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한다. 반면에 새만금 간척지는 2000년도 완공을 목표로 1억 2000만평에 이르며 그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한다 하니 과히 엄청난 간척지임을 집작 할 수 있으리라. 반면 이곳 주민들에게는 갯벌이 그들의 삶과 애환을 담고 있는 터전이었을텐데... 라는 생각에 사뭇 아쉬움(지도가 변하는만큼 사람들의 마음도 변한다던데 라는)도 남는다.

변산반도를 따라 남으로 내려가다 보면 천혜적으로 생긴 많은 해수욕장을 볼 수 있다. 이 해수욕장은 유기질이 풍부한 갯벌로 최근 미용에 좋은 갯벌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변산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격포 해수욕장, 상록 해수욕장, 모항 해수욕장 등, 그래서 여름철이면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 인파로 장사진을 이루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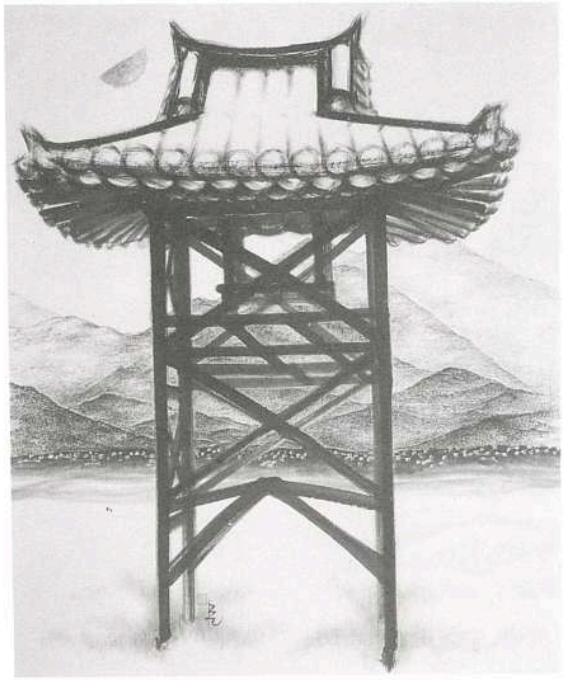
그 밖에 조선팔경중의 하나인 격포 채석강을 비롯해 우리나라 사찰중 가장 본래의 모습을 간직한 내소사엔 대웅전이 있고 천년묵은 당산나무가 있어 이 고장의 자랑거리이다.

내소사를 지나 동으로 정읍과 연결되고 남으론 고창이 연결되는 옛부터 교통의 요충지로서 타지역과 교류가 활발했음을 짐작케한다. 동으로 가다보면 줄포, 곰소로 이어지는데, 산어귀에서부터 넓다랗게 이어진 염전의 풍경은 한편의 영화장면처럼 펼쳐져 있어 한폭의 풍경화를 상상(6-70년대 못살던 시절을 연상케하는 영화의 한장면)하게 하고, 이 곳은 소금의 본 고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염전이며 갯벌은 옛부터 이 고장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소금이 풍부하여 젖갈로도 유명한 곰소는 서해안의 전진기지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듯 변산반도는 노령산맥 자락으로 이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안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43%가 농지이고 천연기념물인 후박나무와 후랑가시나무, 기타 선사시대의 유적지인 하서면 고인돌 군락군, 개암사의 개암죽염등, 천혜의 관광지이자 문화유산의 보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 회화

문 순



1.

어린 시절, 가위 눌리던 꿈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된다. 나머지 밤을 꼬박 새우고 이불로 눈물을 훔치며 눈이 다시 감길까봐 무서워 진저리치던 그 어린 밤들의 꿈들이 생생하다.

내 어린 시절 서울에도 땅이 땅이었던 시절에 조그마한 웅덩이에 물이 조금 고였을 정도의 웅덩이에 내 던져져 세숫대야로 꾹꾹 누군가 나를 짓누르던 꿈.

가장 크게 소리를 쳐도 그러나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던 악몽.

다 죽기 바로 전이었을가? 깨어나던 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불속에서 새벽을 기다려 일어난 나는 하루종일 어데고 갈 수 없었다. 온통 무서움에 겁먹고 집 밖을 한번도 나가지 못했다. 학교도 가기전 훨씬 전의 일어있다.

2.

어린시절 나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어쩔수 없는 일들이,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가정 안팎으로 많이 일어났다. 난 쉽게 체념하는 아이로 자라났던 것 같다.

그래서 더더욱 나는 종교적인 아이로 변해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곁에서 "니가 순이냐?" 하시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난 그때 돌아가셨다라는 단어를 한참이나 되뇌었다.) 그 큰 흙무덤에 절을 하였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어떤 알 수 없는 커다란 힘에 의해 움직여지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스스로 하나하나에 신을 만들어 가기도 하였다. 난 3과 9를 가장 좋아했었는데 그 숫자들에게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셈을 풀기도 하였다.....

삶과 죽음의 저 뒤편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던 그 큰 힘

3.

나는 기독인이다. 내 주변의 많은 기독인들로 인해 나는 많은 시간을 기독교적 사상과 접하게 된다.

접할수록 강하게 느껴지는 힘.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세상을 움직이는 힘. 나는 사랑의 힘이라 믿는다.

성경 66권이 사랑이라는 사실이 내겐 감격이 된다.

사랑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라고 나는 믿는다.

소외가 말끔히 해소되는 절대적인 평안... 나는 늘 감사하며 지낸다.

4.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양심을 깨우쳐주던 새벽 닭의 울음소리가 여기 이 종의 의미이다. 먼 옛날 시계가 흔치 않았던 시절 예배당의 종소리는 시계이상의 의미를 각 성도들에게 전달하였었다. 시간을 채근하기 보다는 마음을 채근하여 주었으며 심령을 가다듬으며 발걸음을 재촉하였으랴. 예수의 사랑의 절대성을 일깨우며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던 말씀들을 들려주기 원하며 달려가고 기다리던 마음들을 일깨워주던 종소리, 예수님의 목소리이다.

5.

1865년에 태어난 전 킨(전위렴)목사는 워싱턴 대학을 거쳐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의 꿈을 한국에서 이룬다. 1892년 서울, 군산, 전주 지방에서 선교하다가 1904년 10월부터 3년간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하시던 중 과로로 별세하여 그의 높은 희생적 선교정신은 호남 선교의 귀감이 된다. 이에 1908년 남편의 선교활동을 기념하여 부인인 메리 레이번 여사가 미국에서 제작된 종을 군산항을 통해 들어와 위 종각에 헌납하게 된다.

이 전킨 선교사 기념 종은 직경이 약 90cm나 되는 서양식의 큰 종으로 당시 종이 울리면 그 맑은 소리가 인근 20여리까지 울려 퍼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종은 1944년 일제 말기에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일본 경찰이 빼앗아가는 비극을 맞는다. 현재 서문교회에 비치된 종은 1945년 해방후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다만 종각만은 처음 모습 그대로이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6.

나는 이 그림에서 의도적으로 종을 그리지 않았다. 일제 수탈의 한 현장을 그대로 보이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굳굳한 종각은 힘있게 더욱 힘을 주어 그려보고 싶었다. 전주의 대명사격인 모악산을 배경으로 종각밑에 또다시 새순돋듯 피어나는 풀잎들을 그리며, 반달을 벗삼은 종잃은 종각을 의연히 그려보았다.

종이 없어도 깨친 자에게는, 종소리는 분명 울린다.
귀에 울리지 않아도 깨친 자에게는, 양심에 울린다.
울림을 간직하면 존재의 유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7.

문화재에 대한 보존의 눈은 모두가 다른가 보다.

비어있는 종각은 우리의 비극의 역사에 대한 그대로의 모습이다.

일제를 쉽게 잊혀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비극은 비극대로 되씹어 깨어나야 한다고 믿어지는데, 비극의 가치는 더 큰 도전을 생성시키는데.....

필자는 조금은 씁쓸하다.

침묵은 더 큰 소리라 하던데 말이다. 전북 회화

전북의 젊은 작가들은 젊은 작업을 —

황 소 연 (전주대학교 교수)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젊은 시절 젊음에는 젊다는 에너지와 생동감이 수반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나 사회는 참되고 힘차게, 우리사회를 영유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젊은 작가 신진들의 활기찬 작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굴해야 한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젊음과 신진들은 불안정 하다거나 기존질서를 파괴한다는 미숙함 투성이로 매도해 버리며 결국에는 기성인들이 안주할 수 있도록 모든일을 기획하고 만다. 물론 기성인들은 많은 체험과 완숙한 기획실천을 해야 안정감 있고 잘사는 세상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의 장점은 도전력, 전위활동, 순수성 그리고 실험적 정신, 패기와 생동력으로 바람직하고 참신한 사회를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장점에는 미숙하고 시행착오가 많으며 어설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의 예술철학, 고정관념적 시각, 연습된 감수력에 변혁을 주려는 원동력은 젊은 세대에서 창출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지역 국가 민족 사회는 변혁을 통한 생동감을 솔직히 요구하고 있으며 그래야 미래지향적 삶의 의욕을 가지기 때문이다.

변혁의 창출을 시도하려면 외부의 모방이나 추종이라고 잘못간주해 버리고 만다. 그래서 다시 기존의 안이한 방향으로 되돌려 놓고마는 기성세대의 완고나 구태는 벗어나야 한다.

젊음의 특성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참신하고 순수하며 때묻지 않은 청신함으로 전통과 전위를 존재시키지 말고 전통과 전위사에에 제3의 창조력이 창출되어져 나오는 것은 合理論的이며 작업에서도 실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예술작업에서 표현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논리나 사고는 예술작품 배후에서 해석되어야 함으로 작업하여 작품을 생성시켜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즉, 직관예술로서 순수를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부단히 작업하여 표현된 예술작품으로 우리의 삶을 대신 표출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 전라도에는 한국적 전통을 느끼게 하는 좋은 환경과 문화유산이 유지된 좋은 환경을 자랑할 만하다.

새로운 삶을 구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체득하면서 가장 한국적 강한 이미지를 우리 전라도 전주라는 특성속에 꽃피워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은 기존세대의 비판이나 냉소, 질서정연한 안주에 대하여 일단 도전하여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도전해 보아야하며 작품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겁없이 전통에서 축출된 예술성에 현대와 미래를 가미하여 새로움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젊은 세대에 한가지 흠이 있다면 마음놓고 작품활동에 집요하게 매달릴 수 있는 시간과 경제력을 못갖춘 흠이 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의 작은 도움만 배려해 준다면 순수하고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이 젊은 이들을 성장시켜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현실을 초월하며 창작활동에 집착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애를 써서 마련된 경제력을 그냥 주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제공하면 이들 젊은이들은 도와주는 기성세대에 대하여 기필코 질높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보답할 것이다. 그런 희열을 기대하면서 기성의 사회세대나 국가차원에서 도움을 주어 차세대의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비겁한 작업에 헛수고하지 않고 오직 작품제작에 매달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작업은 할 수 있으나 먹고사는 일에 비위맞추는 비굴한 작업이 나오지 않도록 청신한 젊음을 유지시켜 주자는 제언이다.

예를 들어 작품발표할 수 있는 전시장 대관료만이라도 신경쓰지 않도록 과감히 면제시켜 40세미만은 무료로 해주자는 것이다. 그대신 화랑이나 모든전시장 유지비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일하는 부서에서나 기성세대의 도움으로 충당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공모전에는 목적에 젊은 신진작가들을 발족하여 예술인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거룩한 목표이나 그것은 기존의 세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목적과 위배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공모전을 통하여 젊은이들을 키워보겠다는 거창한 광고는 그 의의를 희석시켜 버리는 작태는 한심스럽다. 운영자들의 옳바른 선정이 잘못되어나가고 있는 점에 젊은이들은 비굴해지고 예술가로서의 의

지를 굽혀버리고 마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 주최 주관측의 운영위원 심사위원님들의 커다란 오류는 참신한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마는 기성세대식의 작태를 자행하고 있음은 반성할 일이다. 이에 체험이 적은 젊은세대들은 기성세대에 유착되어 일찍 늙어버리고 만다.

우리 삶의 가치관은 형식적 물리적 외형적 풍요보다는 질높은 삶을 살고자 하는 문화적 정신적 내면세계에 더 큰 기대를 하면서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기성인들은 인색하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젊음의 에너지에 불붙여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우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욕에 찬 순수한 젊은 작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약점인 경제력을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 방법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적으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을 감당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부터 적극적이어야 한다. 경제력 증강을 위해서 예술문화진흥 못지않게 수고하는 기업인들 질높은 삶의 풍요를 기대하는 사회적 풍토와 분위기조성은 곧 이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어 우리의 예술문화 유산을 계승발전시켜가며 미래를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신한 생동력으로 우리에게 보답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은 상호조화되어 우리의 향토를 이상향으로 구현시킬것이다.

앞의 두서없는 제언을 함축하면 우리 기성세대의 작은 도움은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유지시킬수 있는 우리의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예술가, 미술인)을 숫자 파악이라도 해보자는 것이다.

특히 외부에서 많은 활동의 기반을 쌓아 우리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해 보겠다는 수는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지원책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 윤곽이 나오면 실천적 지원책이 기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도정이나 시정을 맡아서 살림하는 담당부서는 의당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일이다.

각 대학별 출신별 장르별 지역별로 파악이 있어야 진흥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젊은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도나 시의 문화예술진흥의 담당부서 예총전북지회 시협전북지회 전주시지회 등 직접 감당해야 할 분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자료는 틀림없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지역의 단체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취임시 우리 예향전북 예술의 도시 전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성으로 내놓지만 실질적으로 살림하는 것 보면 언제 그런소리 했느냐며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고 발뺌하며 희석시켜 버리곤한다.

우리 고장은 산업화를 통한 경제력 부강이나 국제화를 시도하는 다른 양태보다는 질높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고장을 위해서는 다른방법은 없다. 오직 예향으로서의 분위기나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내놓을 수있는 제 1위의 방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먼훗날 후대들은 과연 그의 명지사 명시장으로 추앙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한국스러운 한국을 대표하여 내놓을 수 있는 지역은 다행이도 우리고장이 유일하다. 그것이 세계화이다.

프랑스는 파리이며 파리의 문화예술은 곧 프랑스다. 파리시장은 파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그는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이어져나가는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향토는 무엇을 성장시켜 어디에 내놓을 것인지 답답하기만하다.

산업화 개발 경제력증강도 모두 이 예술 문화 진흥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급하게 현실에 맞추는 근시안적 시정은 교정되어야 한다.

전라도 전주 고창 익산 남원등의 고유한 지방색을 외면하고 커다란 실적이 있는양 허겁지겁 임기를 마치는 조장행정기관에서는 다시한번 재인식을 해야한다고 제언한다.

먼훗날의 자산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기성세대들은 희생하고 도와주어야 젊은이들은 그의 보답으로 미래를 꽃피울 수 있으며 젊은이들은 이 어려운 현실을 참고 견디어내는 극복의 에너지를 발현하기 위하여 젊고 젊은 작업력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제언한다.

끝으로 다행이 우리고장에는 전북회화 회원여러분등과 동질의 젊은이들이 버티어 가는 한 우리의 미래는 절망할 수 없고 밝은 내일을 기대한다.

동시대 동질의 젊은이들과 연대하여 힘있고 젊게 이 어려운 현상을 극복하는 도전력을 유지해주기 바랍니다. 전북회화

바다와 해바라기

장 연 주 (주부)

우리 집에는 <바다>와 <해바라기>가 있다.
그 <바다>는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바다보다도 더 파랗고 넓고 아름답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무심코 <바다>를 바라본다.
수평선을 헤집고 이제 마악 떠오르려는 여명의 바다를.

그 동그라미 속으로 향하는 갈매기의 힘찬 날개짓이 전해져온다. 여기저기에 깃털들이 흩뿌려지고 그 중의 하나는 내 어깨에 떨어져 속삭인다.

'안일하지 말고 비상하라.'
그리고 하루가 시작된다.
남편의 출근, 아이 등교, 설겆이, 청소.....

잡다한 일상의 수고로움에서 자유로워 지는 시가, 이번엔 바다가 나를 내려다 본다.

고요인 듯 풍랑인 듯, 가로진 켜켜의 하얀 불규칙 선상에 몇 마리의 오리들이 부대끼듯 기도하듯,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무렇게나 파낸 듯한 음각 속에 우주가 있다. 번민, 욕심, 애증, 절망들 .....
물결에 밀리는 대로 몸을 맡기고 초연할 수만 있다면 나도 일상의 무게를 다 벗어던지고 바다에 푹 빠져들어 저렇듯 가볍게 떠있고 싶고, 영화 <그랑블루>의 주인공이 되어 누군가와 바닷속에 마주 앉아 캔맥주 한잔 나눠도 좋으리라.

<바다> 가 다시 일몰 채비에 분주해지면 나는 그 옆에 꽂혀있는 고호의 <해바라기>를 본다.

이 추운 겨울에도, 밤에도 시들지도 지지도 않고 살아서 움직일 것만 같다. 노랑에서 갈색으로 이어지는 중간 중간에 만나는 색들을 보면 나는 추원진다.

카타르시스란 이런 것일까?

커피를 한잔 마시려다 보니 그색과 향기가 서로 무척 닮아 있음을 느낀다.

새삼스럽게 안복(眼福)에 소유(所有)까지 갖추었으니 세상의 어떤 갑부가 부러울까?

★

그림이라곤 초등학교 시절 다가공원에서 직인 찍힌 도화지에 그린 풍경화가 전부인 내가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열적고, 워낙 염체없는 일인 줄은 알지만 그나마 나같은 왕초보(?)를 위한 지면이라니 다행스럽다.

내가 처음 화랑 나들이를 한것은 나에게 이 글을 써보라고 권해 온 이와 함께였다.

엄마 치마폭에 얼굴을 가리고 한눈으로만 조심스레 쳐다보는 어린애의 호기심과 경이, 두려움이 아마도 그러했으리라.

<흙과 도자기의 만남>이라는 친근한 주제로 화랑은 나를 맞이했고, 다기(多器)와 몇 점의 생활자기도 구입할 수 있었다.

물론 화랑에 대한 선입관이나 이질감, 서먹서먹함도 그 곳의 쓰레기통에 보관하고서 말이다. 그 이가 나를 일깨워주지 않았다면 나에게 그림이란 영원한 <먼그대> 내지는 <짝사랑> 이었을 것이고, 화랑이란 그야말로 영원한 <그집앞> 이 되었을 것이다.

★

나는 <바다>와 <해바라기>와 함께 산다. 전북 회화

진소자 너 청소시간 끝나고 미술선생님이 보재

진 소 자 (전북의과대학 산부인과)

"진소자 너 청소시간 끝나고 미술선생님이 보재 "
26년전 여고 1학년때의 일이다.

미술시간에 (당시 미술선생님은 김현철, 박남재 선생님이었다.) 자기손을 연필 뎃생 하였는데, 그 후 미술부에서 그림을 해보라는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본관 옆 과학실험실과 붙어있던 미술실은 여고 2년동안 잠시나마 혼자 있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방과 후 밤열차의 기적소리를 들으며 이젤과 마주하고 있을때 모든게 부족하고 궁핍하였을 때이나 참 행복했었다.

그때는 대부분 특별활동에서 그림을 그리던 아이들이 미술대학을 지망했고, 틈틈히 학교 선생님들이 봐 주시는 것이 유일한 것이었지 지금처럼 미술학원에서 지도받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그후, 그때의 꿈과는 전혀 다른 의대시절을 거치고, 먹고 자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반납해야 하는 산부인과 수련의 시절을 지나,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때 미술실에서 홀로 있었던 시간을 회상하면 강산이 변하면, 3번도 변할 그 세월을 뛰어넘어 가슴이 두근거린다.

지난 여름 휴가때는 아이들과 함께 호암 아트홀에서 열렸던 '구갠하임 미술관' 순회전에 들렸었다. 나에게는 늘상 그림만 그리고 사는일이 이루지 못한 첫사랑 처럼 남아 있고, 딸아이도 예고에서 미술을 하기 때문에 전시회를 자주 찾는 편이다.

물론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오랜 세월동안 수집한 미술품들이라 전주에서 접하는 전시회와는 비교할 수 없겠으나 여유있는 재력가들의 예술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전시회와는 비교할 수 없겠으나 다시한번 그들이 진정한 선진국임을 느꼈다.

전주에서도 한가한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전시장을 자주 찾는 편이다. 예향이라는 말과는 맞지않게 넉넉한 주차장이나 휴식공간을 갖춘 전시장하나가 없는 실정이지만 예술회관이나, 근처의 조그만한 화랑들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스트레스로 부터 해방되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런기회를 갖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화랑들이 분산되어 있고, 너무영세하다는 것이다. 간혹 메스컴을 통해서 전주시의 문화거리조성(경기전 부근) 사업을 듣곤 하는데, 이런 기회에 안락한 화랑가가 조성되어 문화에 갈증난 사람들의 공간으로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전시회 Opening이외에는 작가들과 관람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다. 지난 여름 오궁리 미술촌에서 잇었던 국제 조각전만해도 그렇다.

세계 곳곳에서 온 작가들이 거의 한달 이상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관람자가 작품을 보고 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 기간동안 아이들과 함께 2~3번 그곳을 방문하여 조각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관람자로써 아쉬움을 느꼈다. 전시기간동안 특정한 시기에 작가들의 작품소개 시간이나 현대미술의 흐름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덧 붙힌다면 그에 대한 관심있는 사람들의 발길을 화랑으로 더욱 유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12월 달력 한장을 앞에 두고, 삶의 에너지가 더 고갈되기 전에 내년에는 저 선반위의 그림도구를 옆에 내려놔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본다. 전북 회화

'97전북회화회 활동계획

1월 신입회원 환영모임
2월 동계수련회 및 스케치 여행
4월 상반기 정기세미나 및 정기모임
6월 정기 전북회화회전
8월 하계수련회 및 스케치 여행
제4회 전북회화회 편집모임
11월 제4회 전북회화지 발행
11월 정기 테마전 주제 세미나
12월 정기 테마전 예정
작가와의 대화시간이 마련됩니다.

이 책자는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에서 지원 받았음.

'96 전북회화회 정기총회

▶일 시: 12월
▶장 소: 전북회화회 회의실
-1년간 활동상황 및 회계보고
-회칙 개정 및 차기회장 선출
-'95 신입회원 추천 및 영입

인 쇄 : 모던칼라정판 ☎ (0652) 253-1134

요금별납 전주우체국

님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젊은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전북회화